

광주까지 당일배송 ... 유통업체 ‘속도 전쟁’

CJ오쇼핑·쿠팡·이마트를 서비스 확대

물류센터 구축에 수백억원 투자하기도

이베이코리아는 상품 ‘묶음 배송’ 제공

유통업체들이 본격적인 ‘배송 전쟁’을 시작했다. 물류센터 구축을 위해 수백억원대 투자 계획은 물론이고 배송 전담 인력을 꾸준히 확대하며 당일 배송망을 구축하고 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시장의 경계가 사라지면서 ‘물류’를 승부수로 띄운 유통업체들이 늘어나는 추세다.

CJ오쇼핑은 기존 수도권 지역에서만 시행하던 당일배송 서비스를 지방 5대 광역시(부산·광주·대구·대전·울산)로 확대하는 일명 ‘신데렐라 배송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CJ오쇼핑은 현재 경기 군포와 부곡에서 물류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CJ오쇼핑은 배송전담 인력을 150명 수준으로 확대하고 배송 프로세스를 개선해 고객들이 주문한 상품을 주문 당일일에 받아볼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CJ오쇼핑 관계자는 “온라인몰인 CJ몰은 상품수가 다양하고 협력사에서 바로 배송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홈쇼핑 판매상품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며 “다만, 앞으로 온라인 전용 물류센터 구축 또한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배송서비스에 가장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곳은 쿠팡이다. 쿠팡은 지난해에만 물류와 배송을 위해 약 1500억원을 투자했다. 현재 전국 8곳 물류센터와 배송전담 인력인 ‘쿠팡맨’ 1000명을 확보하고 있다. 국내 e커머스 기업 중 최대 규모다.

쿠팡은 내년 완공을 목표로 인천에 물류센터(9만 9173㎡)를 신축하고 있다. 쿠팡은 이러한 가치를 인정받아 최근 손정의 회장이 이끄는 일본 소프트뱅크로부터 10억달러(약 1조1000억원)를 투자받기도 했다. 쿠팡은 투자 자금을 바탕으로 물류센터를 16개까지



최근 쿠팡은 ‘로켓배송’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업계에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켰다. 로켓배송이란 자체 배송 인력인 ‘쿠팡맨’을 채용해 상품을 직접 배송해주는 서비스다. <쿠팡 제공>

확충할 계획이다.

대형마트에서 운영하는 이마트몰은 지난해 800억원을 투자해 온라인 전용 물류센터인 ‘보정센터’(1만4605㎡)를 만들었다. 서울 남부·경기 북부 지역의 배송을 담당한 후 이 지역 당일 배송비율은 60~70%까지 상승했다. 이마트는 올 연말 김포에 제2온라인 전용 물류센터를 오픈할 예정이다. 보정센터보다 배 가량 CAPA(생산설비능력)가 크기 때문에 당일배송이 가능한 지역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이마트몰은 오는 2020년까지 온라인 전용 물류센터 6개로 확충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마트 관계자는 “각 점포에서 배송하는 시스템을 기본으로 하고 있지만 수도권과 같은 인구밀집 지역에는 전용 물류센터를 만들어 당일배송으로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을 더욱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옥션과 지마켓을 운영하는 이베이코리아는 여러 판

매자의 상품을 한 번에 묶음배송하는 ‘스마트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옥션과 지마켓은 오픈마켓 특성상 판매자가 다른 여러가지 상품을 구매할 경우 배송비(3000원)를 각각 내야 했다. 그러나 ‘스마트배송관’에서 제품을 구입하면 배송비를 한 번만 내면 된다.

업계에서는 물류를 잡는 온라인 업체가 시장 주도권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이미 온라인과 오프라인 시장의 경계가 무너지는 상황에서 물류를 승부수로 띄운 유통업체만이 살아 남을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대부분 유통 업체들이 온라인으로 진출하면서 업태를 넘어선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며 “택배는 유통업체에 대한 이미지나 고객 만족도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부문에서 차별화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이상 고온·가뭄 ... 채소가격 천정부지

배추·대파·열무 등 전년보다 2배 올라

지난달 이상 고온현상과 가뭄으로 배추, 대파, 열무 등 채소 가격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가량 급등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 사이트(www.kamis.co.kr)에 따르면 15일 도매가 기준 배추 1kg 가격은 76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35원)보다 무려 126.7% 올랐다. 양배추 10kg 가격도 지난해 같은 기간(4125원)보다 166.7% 오른 1만 1000원이다.

배추 가격이 오른 것은 지난달 적정 생육 온도를 웃돈 이상 고온현상에 지난해부터 극심한 가뭄이 지속되면서 생산량이 줄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달 낮 최고 기온은 30도를 넘었으며 전국 평균 강수량도 57mm로 평년 강수량(102mm)의 절반에 그쳤다.

열무 1kg 가격도 155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9% 올랐다. 이는 배추와 마찬가지로 열무도 이상 고온에 생육 부진을

겪으며 출하량은 줄었지만 여름을 앞두고 물김치 수요는 늘었기 때문이다.

양념 채소도 예외는 아니다. 양파는 1kg에 82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0%, 마늘 1kg은 3만 8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1.8%, 대파 1kg은 248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7.5% 각각 올랐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자체, aT, 농협 등 관계기관과 긴급 수급점검회의를 열고 농축수산물 수급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산지가격과 농산물 작황 등 수급동향 모니터링을 강화해 농산물 가격 안정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유통 전문가들은 채소 가격 오름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해 서민 경제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큰것 아니면 작은것’ 음료 사이즈 양극화

음료·착즙주스·빙수 등

소용량·대용량 제품 모두 인기

최근 음료업계에서 휴대가 편리한 소용량 제품과 가격 경쟁력이 있는 대용량 제품이 함께 인기를 끄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하이트진로음료는 최근 탄산수 ‘디아망’ 제품 용량을 기존 500㎖보다 줄여 350㎖ 소용량 제품을 새롭게 내놴. 탄산수 특성상 오래 보관하기보다 개봉하고서 한 번에 마시는 음용 패턴과 편의점 등을 통한 근거리 소량 구매가 확산한 데 따른 것이다.

웰빙 열풍과 함께 인기를 얻은 착즙주스도 ‘미니’ 사이즈로 출시되고 있다. 웅진식품 착즙주스 ‘자연은 지중해 햇살’은 한 손에 들어오는 작은 사이즈인 240㎖ 소용량 제품을 내놴.

경제 불황의 여파로 알뜰한 소비를 원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용량을 대폭 늘린 편의점 자체상표(PB) 음료도 인기를 끌고 있다.

편의점 씨유(CU)의 ‘씨유 빅 요구르트 XXL 사이즈’는 일반 소규격 요구르트(통상 60㎖)의 7배가 넘는 450㎖다. 용량은 커졌지만 가격을 낮춰서 10㎖당 가격은 40원으로, 일반 요구르트(10㎖당 약 74원)보다 46%가 저렴하다. 씨유는 이와 함께 아이스 음료 ‘텔라페’의 용량을 두 배로 키운 ‘빅 텔라페’도 선보이고 있다. 해당 제



품의 주고객층인 젊은 남성과 중년 남성을 겨냥해 380㎖의 대용량 제품을 출시한 것이다.

커피전문점 드롭탑은 3~4인용 빙수인 ‘아이스탑’과 1인용 컵빙수인 ‘고고성 아이스탑’을 함께 판매하고 있다. 아이스탑이 여러 명이 앉아서 즐길 수 있는 제품이란 면고고성 아이스탑은 테이크아웃이 가능해 야외에서도 즐길 수 있는 제품이다.

업계 관계자는 “1~2인 가구 및 야외 활동 인구의 증가, 경제 불황 등이 맞물리면 서 휴대가 편리한 소용량 제품과 가격 경쟁력이 있는 대용량 제품이 동시에 각광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보도블록 밟으면 전력생산” ... 착한 아이디어에 첨단 기술 입혀라

■코트라 ‘세계 히트 환경상품’ 보고서

우리나라 수출입이 5개월 연속 동반 감소하는 등 비상등이 켜진 가운데 환경상품 시장이 수출 부진을 타개할 새로운 분야로 떠오르고 있다.

코트라(KOTRA·사장 김재홍)가 최근 발표한 ‘세계 시장의 히트 환경상품’ 보고서에 따르면 높은 기술력에 참신한 아이디어를 입혀 국가별 소비 취향을 공략한 환경 제품들이 세계 환경시장의 성장세를 이끌어가고 있다.

더욱이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최근 환경상품에 대한 관세 철폐 논의가 시작되면서 세계 환경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글로벌 환경 시장의 틈새를 개척하고 있는 첫 번째 키워드는 아이디어다. 영국의 페이브젠(PaveGen)은 사람이 밟고 지나가면 전력을 생산해 내는 보도블록으로 주목받고 있다. 미국의 대표 전자기업 델(Dell)은 신규 창업사와 협력으로 완전분해가 가능한 버섯 패키징을 개발, 기존에 사용하던 스티로폼 대신 버섯 포자를 원료로 한 포장재를 선보여 호평받고 있다.

에너지 컨설팅 서비스, 자전거 대여, 카풀 시스템 등 친환경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한 서비스 시장도 커지는 추세다. 지속적 기술 개발을 통해 탄생한 혁신 제품들도 환경시장의 한 축을 이룬다.

프랑스 완성차 기업 르노는 전기자동차에 배터리 임차 서비스를 도입해 절반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확보했

다. 일본의 토도토 기존 양변기에 비해 최대 70%의 절수 효과를 가진 절수양변기를 개발해 친환경 기술력을 인정받아 업계의 선두를 달리고 있다.

국가별, 지역별로 소비자의 취향을 파악한 맞춤형 전략도 필수적이다. 탄소배출량과 신재생 에너지 정책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EU는 지집에 부합하는 에너지 고효율을 가진제품의 최우선으로 꼽는다.

유럽인들에게는 무조건적인 기능성 광고보다 인체에 대한 유해수치를 명기하는 마케팅이 효과적이다.

반면 대기오염으로 골머리를 앓는 중국에서는 고효율 가전제품에 현대적 디자인을 입혀 인테리어 기능까지 함께 선보여야 주요 소비층인 여성 고객들을 사로잡을 수 있다.

/연합뉴스

경매투자! 무엇이 문제인가!

NPL과 특수경매만이 정답이다!

특수경매 배우실 분!

- NPL과 특수물건만 전문취급
- 배우면서 투자 가능
- 1대1 실전사례 교육
- 입장 / 교육비 등 2200만원
- 단, 상담 후 본사 결정

경매 전문회사
(주)오천경매 H. 010-3605-5000

담양 금성면, 근린시설 매매

- 전남 담양군 금성면 대성리 879-4번지 외 1필지
- 대지 9168평, 건물 882평, 계획관리지역, 제2종 지구단위 계획구역
- 담양댐 하류 바로 옆, 건너편 전원주택단지, 담양리조트 1분거리
금성 펜션단지 1분거리, 금성산성/추월산/강천산/대나무 박물관/메타세쿼이아길 근접
- 현재 박물관, 펜션, 식당, 별장으로 운영 중
- 차후 형질변경으로 공시지가 10억정도 상승 가능
군 관광자금 유치 가능
- 요양(병)원, 연수원, 별장, 수련원, 종교시설, 전원주택지
펜션단지 등등 모든 업종 개발 가능
- 매매 - 감평가 28억 / 시세 30억 정도
매매 21억(일시불 조정가)

공동투자 하실 분도 모심!

■ 주인직매 H. 010-3605-5000

